

# REUTERS WEEKLY NEWSLETTER

Monday, Feb 11, 2019 (2019-6 호)

- [주간 국내 일정](#)
- [주간 해외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전망](#)
- [지난주 주요 기사](#)

- ◇ (POLL) 줄어드는 달러의 매력
- ◇ (그래프) 지난 1 개월간 한국·대만 기업 순익 전망 하향 조정폭 가장 커
- ◇ (칼럼) 70 세 퇴직, 美 은퇴 위기 해결책 되긴 어려워
- ◇ (칼럼)-기조적 물가 판단 놓고 딜레마 빠진 한은 금통위...'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 맞춰야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이메일: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의회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프랑스와 르누아르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 이번 주에는 주간 변동률 대신 2주간 변동률을 제공해 드립니다.

(2월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2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2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23.9	-0.2%	-0.7%	-4.1%	유로	1.1328	-0.7%	-1.2%	-4.4%
100엔 대비	1,023.7	-0.3%	-0.8%	-6.9%	엔	109.72	-0.2%	-0.1%	2.8%
유로 대비	1,272.7	0.2%	0.3%	0.2%	위안	6.7340	0.2%	2.1%	-5.3%
위안 대비	166.52	-0.6%	-2.8%	1.3%	해외주식	최종	2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2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5,106.33	1.5%	7.6%	-5.6%
코스피	2,177.05	0.0%	6.7%	-17.3%	나스닥	7,298.198	1.9%	9.9%	-3.9%
코스닥	728.74	2.4%	7.9%	-15.4%	S&P500	2,707.88	1.6%	8.0%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2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10.83	1.2%	7.1%	-16.2%
국고채 3Y	1.786%	-2.6bp	-3.1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2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853%	-3.1bp	-3.1bp	-45.9bp	미국채 2Y	2.467%	-14.3bp	-3.1bp	60.7bp
국고채10Y	1.965%	-4.0bp	1.7bp	-52.1bp	미국채 10Y	2.634%	-12.5bp	-5.7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2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	2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2.72	-1.8%	16.1%	-24.8%	한국 5Y	32.65	-0.43	-5.41	-13.74
금(현물)	1,313.99	0.8%	0.9%	-1.5%	일본 5Y	18.66	-0.62	-3.13	-3.34
TR상품지수	2,365.06	-1.3%	-0.3%	0.0%	중국 5Y	56.27	-0.90	-10.20	16.96

(달러/원 서울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THOMSON REUTERS

## 주간 국내 일정

### <2월 11일(월)>

- 특이일정 없음

### <12일(화)>

- KDI 경제동향(12:00)
- 한은, 1.24 개최 금통위 의사록 공개(16:00)

### <13일(수)>

- 통계청, 1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09:30)

### <14일(목)>

- 한은, 12월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12:00)

### <15일(금)>

- 한은, 12월 국제수지(08:00)
- 한은, 1월 금융시장 동향(12:00)
- 한은, 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1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 주간 해외 일정 (한국시간)

### <2월 11일(월)>

- 중국, 1월 총통화(M2) 공급 증가율(11~18일중)
- 중국, 1월 위안화 신규대출(11~18일중)
- 중국, 1월 외환보유고(미정)
- 일본 휴장

### <12일(화)>

- 미국, 1월 NFIB 기업낙관지수(20:00)
- 일본, 12월 건축주문(12~18일중)
- 중국, 1월 외국인직접투자(FDI)(12~19일중)

### <13일(수)>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일본, 1월 기업상품가격지수(08:50)
- 유로존, 12월 산업생산(19: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1:00)
-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22:30)

### <14일(목)>

- 미국, 12월 연방예산(04:00)
- 일본, 4분기 GDP(08:50)
- 유로존, 4분기 GDP 잠정치(19:0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2:30)
- 미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22:30)
- 중국, 1월 수출입(미정)
- 미국, 11월 기업재고(자정)
- 미국, 11월 소매재고 수정치(자정)

### <15일(금)>

- 중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10:30)
- 중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10:30)
- 일본, 12월 산업생산 수정치(13:30)
- 유로존, 12월 무역수지(19:00)
- 미국, 2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22:30)
- 미국, 1월 수출입 물가(22:30)
- 미국, 1월 소매판매(22:30)
- 미국, 1월 산업생산(23:15)
- 미국, 12월 기업재고(자정)
- 미국, 12월 소매재고 수정치(자정)
- 미국,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자정)

<외환시장>

- 미-중 무역협상 진전 관련 불확실성 재부각에 관망 심리가 커지고 있다.
- 이번 주 발표되는 1월 중국 수출입 지표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에 대한 선반영도 있었던 만큼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자들은 미국 물가지표 발표에도 관심을 갖고 있으나 미국 연준의 정책 스탠스를 크게 훼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관망심리가 커지면서 달러/원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최근 글로벌 달러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달러/원 지지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주간 환율 예상범위는 1115-1135 원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성패에 따라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지난주 호주, 영국, 유로존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는 등 글로벌 완화 기조가 확인됐다. 한국은행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금리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10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 여부에 대해 밝힌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추경 논란이 처음 수면으로 떠올랐을 때는 채권시장에 롱 재료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했다. 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 그러다 추경 발행이 가시화되면 장기물 쪽으로 금리 상승 압력이 나타나곤 했다. 현 시점에선 금리 전반의 하방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 오는 14일과 15일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확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글로벌 증시와 금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12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 1월 24일 열렸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발표한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회의였지만 금통위원들의 현재 스탠스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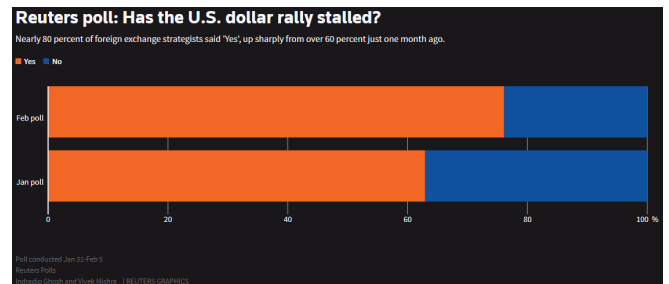
**(POLL) 줄어드는 달러의 매력**

벵갈루루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대해 도비시한 입장으로 선 회하면서 달러의 운명이 바뀌어, 달러가 매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서 전략가들이 평가했다.

달러는 지난해 금리 인상과 견실한 경제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성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연준의 정책 유턴으로 달러는 이미 아래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다.

로이터가 지난 1월 31일-2월 6일 70명의 통화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달러는 올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2018년의 상승분을 대부분 내줄 것으로 전망됐다.

추가 질문에 응답한 전략가들 중 80% 가까이는 달러 랠리가 이미 중단됐다고 답해, 한달 전의 60%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 나머지 응답자들은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미국의 경제 성적과 연준의 금리 재평가가 달러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해외 성장 둔화와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기간 셧다운 등 '억류'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최근 몇 주간 악화되었다고 말했다.

이는 연준이 올해 신중한 접근법을 취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모간스탠리의 전략가들은 "2018년 달러 강세를 뒷받침했던 미국의 성장 두각, 연준의 금리 인상, 대차대조표로 인한 유동성 여건 긴축 등이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업 및 소비자 심리 등 선행 지표들이 미국 경제의 둔화를 시사하고, 연준의 수사 변화는 금리

가 인하될 것이며 대차대조표가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달러 약세 재료"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요 통화들은 올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른 통화들의 큰 폭 상승 역시 제한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미 진행중으로, 주요 중앙은행들이 관망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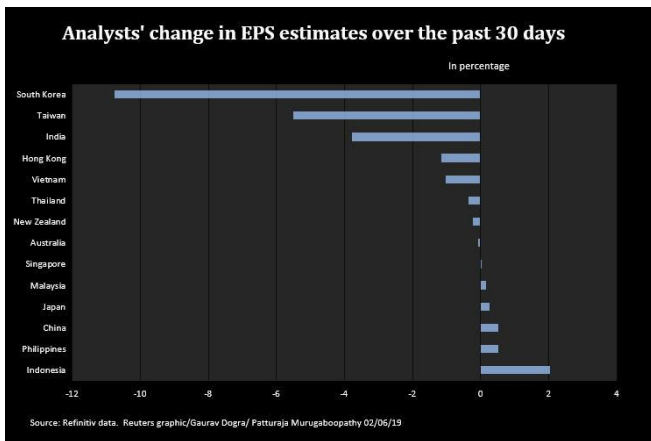
※ 로이터 환율 전망조사 결과:

<https://tmsnrt.rs/2k8GCSM>

### (그래프) 지난 1 개월간 한국·대만 기업 순익 전망 하향 조정폭 가장 커

(로이터) - 지난 1 개월간 애널리스트들이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순익 전망을 제일 많이 하향 조정한 것으로 레피니티브 자료에 나타났다. 이들 국가가 기술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기업들의 올해 순익 전망을 10%, 대만 기업들의 순익 전망을 5.5%씩 각각 하향 조정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칼럼) 70 세 퇴직, 美 은퇴 위기 해결책 되긴 어려워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 (로이터) - 은퇴 연령을 70 세로 늦추면 85% 정도는 은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곧

일어날 미국 은퇴 위기에 대한 간단한 해결책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앨리사 머넬 보스턴 대학 은퇴연구센터 소장은 "이들은 직장에서 추가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 동안 기존 저축액을 남겨둘 수 있으며, 저축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 보장 및 노인 의료 보험 제도 자금 조달을 우려하는 이코노미스트들과 의원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러한 계산은 실제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MIT 경제학과 교수이자 전미경제조사국 국장인 제임스 포터바는 지난주 브루킹스 연구소 포럼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포터바 교수는 "모든 사람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사회보장제도 연금을 만드는 경제학자들과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불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교했다.

많은 교수가 70 대까지 일하지만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 연구소는 새로운 연구에서 50 세 이상의 사람 중 약 10%가 건강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건강 및 은퇴 연구소에서 50 세 이상의 사람들의 노동 기록을 연구한 리처드 W. 존슨 도시 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연령주의가 교육,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훨씬 더 많은 노인 노동자들은 일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 근로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절반은 소득이 42% 이상 줄었고, 10%만이 실직 전과 동일한 소득을 기록했다.

존슨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는 지금도 연령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 ◆ 대안

70 세까지 일하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가능한 한 오래 일하라고 권고했다. 존 쇼벤 스탠포드 경제학자는 62 세 대신 66 세에 은퇴하는 것이 삶의 수준을 1/3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머넬 소장은 고용주들에게 고령 근로자들을 더 오래 일하도록 설득할 방안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재의 66.5~67 세에서 70 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머넬 소장은 고용주들이 직장인은퇴연금인 401(k) 연금을 늘리기 위해 무기한으로 머물 것을 꺼려 50 대 근로자들의 고용을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 연령이 70 세로 설정된다면, 고용주는 직원이 언젠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이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정치적으로 난감한 문제이다. 저소득층이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70 세 이전에 연금을 받게 되면 수령 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를 바꾸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존 쇼벤 스탠포드 대학 경제학 교수와 로버트 클라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가 주장한 또 다른 방법은 62 세 이상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내는 지불 급여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현재 직원과 고용주는 소득 중 최대 132,900 달러에 대해서 6.2%를 지불 급여세로 내야 한다. 쇼벤과 클라크 교수는 더 많은 노인이 일해 소득세가 늘어나면 사회보장제도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장국의 스티브 고스 수석 보험계리인은 이러한 감세가 고소득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되거나, 노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주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수입이 준다면, 젊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해 자신의 은퇴를 위해 저축할 능력이 떨어지고, 은퇴 준비 위기 순환은 계속될 수 있다.

### **(칼럼)-기조적 물가 판단 놓고 딜레마 빠진 한은 금통위..!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 맞춰야**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더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더) 임승규 기자 - "물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목표 수준으로 명시돼 있는 2%가 중기 평균의 개념임에도 일부에서는 이를 상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물가목표를 중기 평균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1 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이 한 말이다. 한은의 사명인 물가안정은 단순히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 수준에서 예측 가능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음을 지적한 발언이다.

1 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 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1 년 만에 1%를 밑돌았다. 지난해 9 월과 10 월, 11 월에 석 달 연속 2%를 상회하다가 12 월에 1.3%로 떨어진 후 한 달 만에 0.8%까지 추락한 것이다.

일부에선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올해 겨울 추위가 지난해보다 심하지 않아 흑한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도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유류세 인하조치가 종료되는 5 월까지 물가는 1% 내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헤드라인 물가만 놓고 보면 물가안정 측면에서 한은의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필립스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긴 하지만 GDP 갭이 마이너스로 가면 물가가 하락하고, 플러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게 여전히 통화정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과도하게 통화당국의 목표 수준과 괴리돼 있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공급능력에 비해 투자, 소비와 같은 총수요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 **▲기조적 물가 파악의 어려움..근원물가의 한계 지적도**

하지만 현재의 낮은 물가가 급격히 하락한 국제유가 영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한은이 물가전망을 할 때 주로 활용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10 월 초 84 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 일 현재 60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올해 초 50 달러 초반대에서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반등한 것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10% 떨어져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 이는 2 분기 후 소비자물가를 0.15%P 하락시킨다. 지난 2015 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식료품, 에너지 가격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크고 수요 측면과 무관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금통위들은 기초적 물가를 파악할 때 이를 배제해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보는 게 근원물가다. 물론 이 근원물가도 심상치 않다. 지난해 근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3분기와 4분기엔 1.1%로 평균보다 더 낮았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해부터 근원물가가 기초적 물가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1월 물가만 해도 교육, 건강보험부터 어린이 충치 치료까지 정부의 관리가 근원물가를 누르고 있어 수요 측 물가압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온라인거래 확대의 파급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국내 온라인거래 확대에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 연평균 약 0.2%p 하락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상품 가격에도 기술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기초적 물가를 온전히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건조한 개인서비스가격, 기초적 흐름 보여준다(?)..최저임금 인상 영향 간과 안 돼

그렇다면 한은이 기초적 물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한은은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를 눈여겨본다. 외식업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국내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서비스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부터 건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에도 전체 서비스 물가지수는 1.4% 올랐는데 개인서비스 물가는 2.5% 올라 전체 물가를 0.79%p 끌어올렸다. 개인서비스물가는 지난해 11월에 2.7%, 12월에 2.4%를 기록하는 등 흔들림 없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외식물가는 1월에도 3.1% 상승해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서비스가격 상승을 기초적 물가 상승 흐름으로 평가해도 되는 걸까?

경기가 좋아서 식당들이 메뉴판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면 이런 평가는 가능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요인을 감안해야 한다. 여기저기 워낙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 개인서비스요금 상승만이 기초적 물가 흐름을 보여준다는 접근은 위험하다.

▲한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 맞춤 필요

물가에 대한 한은의 접근이 '겉에서 보이는 것만큼 물가가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도 문제다.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물가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경기 활력 저하를 보여주는 물가 하락세를 되돌릴 방법에도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회의 당시 어떤 지표가 기초적 물가를 가장 잘 보여줄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위원들 간의 의견이 엇갈렸다.

한 위원은 관리물가를 중요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위원은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외 다른 지표의 경우 추정 편차가 큰 만큼 물가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지난 2016년 한은이 내놓았던 경기 민감물가지수가 기초적 물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은 물가다. 그리고 금통위원들이 이 물가를 어떤 지표를 가지고 들여다볼 것이냐는 문제는 향후 통화정책을 전망하는 데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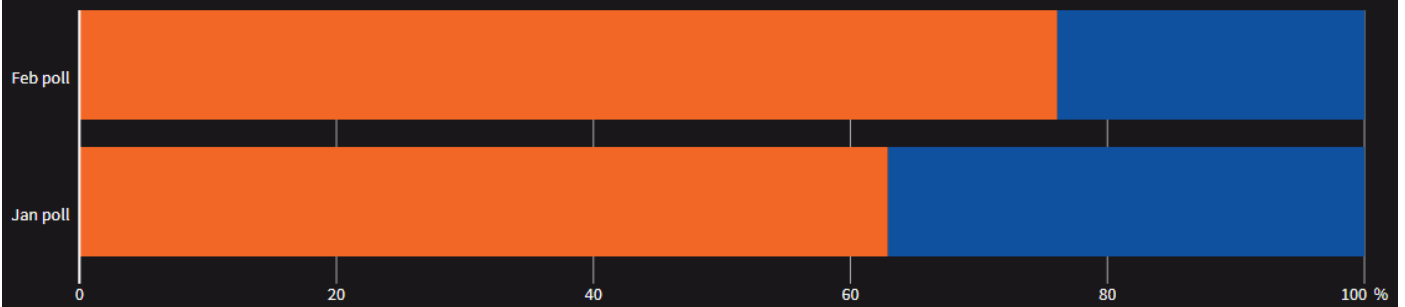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 Reuters poll: Has the U.S. dollar rally stalled?

Nearly 80 percent of foreign exchange strategists said 'Yes', up sharply from over 60 percent just one month ago.

Yes No



Poll conducted Jan 31-Feb 5

Reuters Polls

Indradip Ghosh and Vivek Mishra | REUTERS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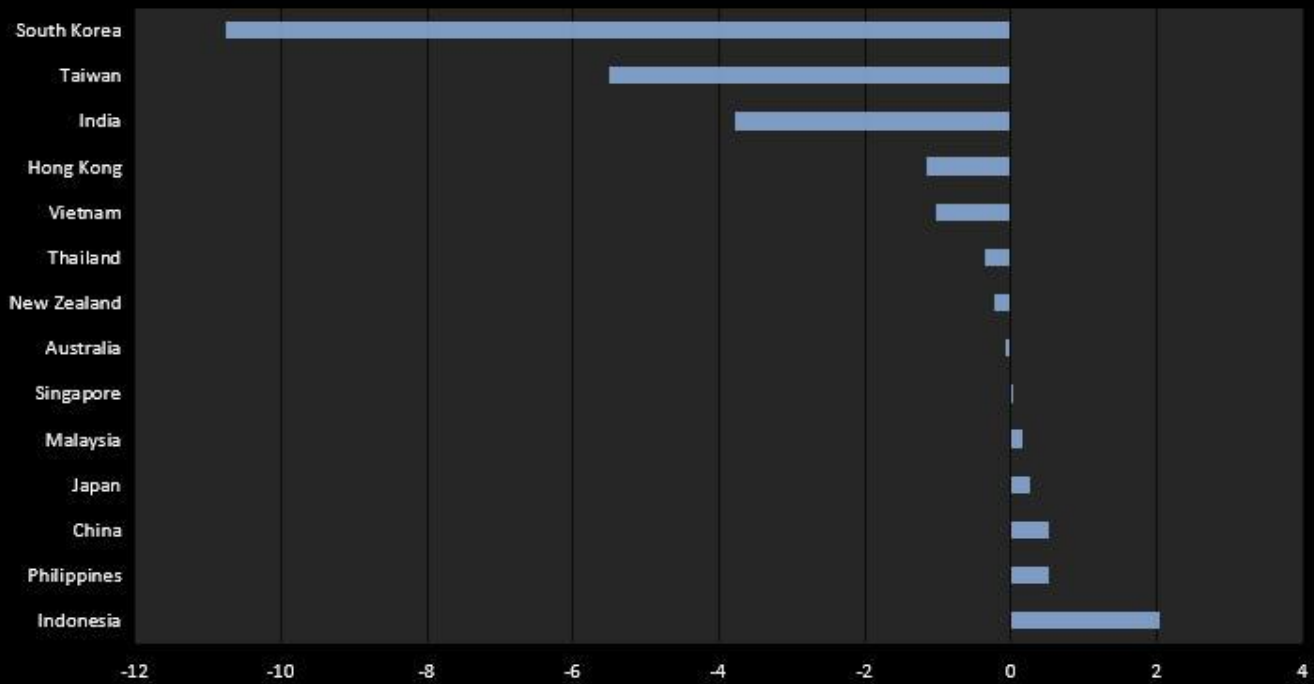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THOMSON REUTERS

## Analysts' change in EPS estimates over the past 30 days

In percentage



Source: Refinitiv data. Reuters graphic/Gaurav Dogra/ Patturaja Murugaboopathy 02/06/19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THOMSON REUTERS